BAe 호크 훈련기, 호주 'Lead-in 전투기' 계획에 선정

호주는 'lead-in 전투기 계획(LIF)'에 개량된 연습기 '호크' 기를 제시한 영국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를 선취권이 있는 입찰자로 지정하였다.

자세한 전체 계약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 32-38대가 구매될 것이다. 최초 12대는 영국에서 제작될 것이며 나머지는 호주에서 조립될 것이다.

계약의 완결을 위한 협상은 97년 초로 일정이 잡혀있으며, 성공적으로 협상이 끝날 경우 생산은 97년 말에 시작될 것이며 최초 항공기는 99년 중반까지 호주 공군(RAAF)에 인도될 것이다.

호주의 한 소식통은 롤스로이스의 'Adour' 엔진을 탑재한 동 항공기를 제시했던 BAe사는 'Adour' 엔진과 얼라이드시그널사의 터빈엔진 F124가 경쟁을 통해서 엔진을 선정하기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BAe사는 'LIF 호크'라 불리게 될 상당히 개조된 호크기의 개량형을 공급할 것인데, 이것은 호주의 요구조건에 맞게 주문 제작되는 것이며 호주 공군의 표현을 빌면 '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의 훈련기이며 가까운 미래에도 최고가 될 수 있는 항공기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호주공군의 노후한 훈련기 Macchi를 대체하게될 LIF 호크기는 전투기 조종사의 초기 훈련 이외에도 무기 및 전술훈련을 포함하는 지원임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동 계약은 호주 산업체와의 강력한 합작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관련된 16개의 호주 업체들이 합작 팀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러, KA-52 헬기 개발 미 아파치헬기 능가

러시아는 차세대 중무장 헬기인 'KA-52 앨리게이터'를 개발, 모스크바 인근 류베르치에서 열리고 있는 에어쇼에서 첫선을 보였다.

러시아의 방산업체 카모프사가 주력기종 'KA-50 블랙 샤크'를 개량해 만든 A-52는 2인승으로 공격과 전투지원 특성을 겸비, 육군 항공대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카모프사의 세르게이 미케예프 수석설계사가 말했다.

러시아가 아·태 지역 헬기부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전략기종으로 개발한 이 최신예 헬기는 미국의 아파치 헬기 뿐만아니라 2005년 선보일 예정인 '코만치(Komanch)'보다도 성능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지상 병력에 대한 전천후 전투지원이 주목적인 KA-52는 장착한 무기로 장갑차나 지상 거점 등을 공략하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헬기는 내부에 장착된 최첨단장비를 활용, 화기탐지는 물론 정찰,수색, 통신및 레이다에 대한 전파방해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美, 레이저공격항공기 개발 미사일 격추용

미국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이저를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최첨단 항공기가 곧 선보일 전망이다.

미 공군은 최근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사의 자회사인 보잉공중방위그룹과 레이저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폭파시킬 수 있는 21세기형 '레이저공격용 항공기' 시제품을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 11억달러(약 8천8백억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보잉 747기를 개조한 이 비행기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레이저발사용 기기를 탑재, 발사되는 적의 미사일을 추적·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기다.

따라서 앞으로 걸프전 같은 전쟁이 재발한다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항하는 미군의 무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라 초강력 레이저빔일 가능성이 높다.

미 공군은 이 비행기가 미국과 우방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가진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레이저는 레이더나 미사일이 정확한 목표물에 명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도장치에 주로 사용돼왔다.

美 공군은 이 레이저공격용 항공기 7대를 1개 편대로 구성, 빠르면 2008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中, 이란에 미사일 판매

중국은 최근 이란에 미사일 기술과 첨단 레이더시설 부품과 신경가스 및 폭동진압용 가스에 사용되는 4백톤 가량의 화학제품을 판매했다고 워싱턴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중앙정보국(CIA)의 10월2일자 비밀보고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이는 중국이 무기확산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이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무기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신뢰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 글린 데이비스 대변인은 워싱턴 타임스가 이날 중국의 이와같은 對 이란 무기판매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중국의 행동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중국이 이란 및 파키스탄과 군사거래를 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여러차례에 걸친 중국과의 논의 결과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국의 무기기술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택민 주석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獨, 유로파이터 구매결정 연기

독일의 국방장관은 유로파이터 프로그램의 생산 투자 단계가 승인되기 전에 1월말까지 의회에 유로파이터 조달 계획을 제시하도록 지시 받았다.

그는 97년의 방위 예산을 정하는 국회 예산 위원회의 11월 14일 회의 이전에 유로파이터의 97년 자금지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의회는 그가 다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두 달 반의 시간을 주었다.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는 97년에는 생산투자단계를 진행시키기 위해 최소한 3억5천만마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단지 1억마르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DASA는 그 나머지를 감당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97년 독일 국방 예산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유로파이터에는 전혀 돈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 유로파이터 파트너들에 따르면 그들은 3개월의 연기를 감당할 수 있다며, '1월은 위험한 연기는 아니나 1월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